

# 악한 왕들과 갑절의 영감을 얻은 70인 제자들이 누린 기적 -복음으로 여는 열왕기하- 열왕기하 2:4-6, 야고보서 5:15-18

정윤돈 목사님

\* **왕하 2:4-6**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샤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샤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샤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샤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 **약5:15-18**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질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의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237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힘을 얻게 하시며,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조건 속에서도 전도자로 살아가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과 미션을 붙잡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중심으로 말씀을 전달하고자 한다. 열왕기하 말씀은 가장 설명하기 어렵고 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선지자의 이야기, 중직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계속 똑같은 잘못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내가 왕이 되면 여러분은 망할 수밖에 없다.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는 나이다. 나를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 내가 왕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분하고 미운 것도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너의 참된 왕이 되어서 너를 행복하게 해 주겠다. 너를 나에게 맡겨라' CCC에서 믿음의 왕좌를 그런 때가 있었는데 불신자는 십자가가 밖에 있고, 신자는 십자가가 안에 있다. 그런데 왕좌가 안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기도, 염려, 불신앙하는 것이다. 이 왕좌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올려야 한다.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 좇아가면 실패자이다. 그리스도로 걸론내고 우리는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그 행복과 축복을 빼앗을 자가 없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엘리야는 우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기도할 때 비가 오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였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를 바란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면 아무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최고를 얻었고, 최고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엘리샤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보여 주었다. 또한 악한 왕들이 가득한 시대였지만 70인 제자들은 기적같은 응답을 받았다. 갑절의 영감이란, 그리스도의 축복을 의미한다. 갑절의 영감의 축복을 받은 엘리샤와 많은 남은 자 70인 제자들은 기적적인 응답을 받았다. 어떠한 강한 나라와 악한 왕들도 갑절의 영감을 누리는 남은 자 램턴트들을 이길 수 없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러한 응답을 받아야 한다.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간증거리가

많다. 이 비밀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뻘뻘하다. 약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때까지 하는 것이다. 지금은 답답한 것 같지만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누리게 되어있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열왕기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록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과 열왕들에 대한 역사이다. 악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을 붙잡은 남은 자 70인 제자들은 미래에 받을 응답을 미리 보았고 후대들에게 포로에서 회복될 것에 대한 언약을 전달하였다. 열왕기상, 하서는 포로기에 기록되었다.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우상숭배해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까지 끌려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악한 왕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나 그 중에서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 너희는 포로현장에서 그들을 닮아서 언약의 길을 걸어라.'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모르드개였다. 여러분도 후대들에게 바른 영적인 언약을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 성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더 그러하다.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 안으로 100%, 300% 들어가라. 어서 빠르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맞고 사탄에게도 맞는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걸론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1. 첫 번째에서는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악한 왕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엘리샤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지 않았는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갑절만 받은 것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1)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 왕은 자신이 병이 걸렸을 때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고 물어보았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 보라 하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상과 무속인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과 귀신들에게 내 운명을 물어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절대주권을 가지신 본인 하나님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절대적인 설계, 편집,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점을 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문제가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앞으로도 보장되어있다. 열왕기하에서는 여러 악한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2) 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에 대한 평가이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스 제십이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구 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BC.722년에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그런데 그 멸망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을 보겠다. "호세아 제구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끌어들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사람들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율례와 규례를 지킨다. 그것이 멸망의 길인 것이다.

(3)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어리석게도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 주는 실수를 범하였다. 열왕기하 20장 13절을 보겠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전쟁과 국제관계 중에서 중요한 것이 보안을 잘 하는 것이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금은과 보배를 다 보여준 것이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이 침략해 올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해결할 수 있다.

(4) 다음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이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7절을 보겠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혈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

루살렘에 두리다 하신 여호와와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와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우리는 바알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가 매주 날마다 하는 잘못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변화된다.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이다.

(5) 다음은 므낫세 왕의 아들인 아몬 왕에 대한 평가이다.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2절이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6) 다음은 여호야긴 왕에 대한 평가이다.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나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 따르지는 않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하지 말아야겠다.' 교훈 삼아야 할 것이 있고, 존중하며 따라야 할 것이 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의 잘못에 원망하지 않는다. 좋은 부분이 있으면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갑절로,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 아버지 왕들이 잘못했는데 끝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결국에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마는 것이다.

(7) 다음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 대한 평가이다.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19절이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일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루달이요 립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은 어리석고 악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그들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악한 왕들과 같은 각인, 뿌리, 체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울무, 함정, 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과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작은 것이라도 붙잡고 나를 그 말씀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 확장될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70인 제자들을 통하여 절대불가능한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실 것이다.

(1)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기적이다.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명의 군대 위에 불이 떨어졌다. 열왕기하 2장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사들지라도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더라" 말씀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지켜주신다. 우상섬기는 사람은 생가지 말아야 할 문제가 계속 생기는 가문이 있다. 천군천사가 지켜주지 않고, 여러분이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계속해서 자녀들을 지켜줄 수 없다. 멀리 떨어져있더라도 기도하면 천군천사가 파송되어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천사동원권이다.

(2) 엘리야는 겹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 이리 저리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 주었다. 열왕기하 2장 8절이다. "엘리야가 겹옷을 가지고 말하 물은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3) 엘리야도 물을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겹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어디 계시니 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엘리야가 건너니라"

(4) 엘리야는 물 근원을 고쳐주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서 22절이다. "엘리야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냐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야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야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기적들은 모세를 기억하게 한다.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모세와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와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오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길을 내는 기적을 누리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쏠뿔이 되어서 마실 수 없어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현장에서 생수를 선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복음이고 기적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불가능이 절대가능으로 바뀌기를 바란다.

(5) 엘리야가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하자 암곰 두 마리가 나와 그들을 찢었다. "엘리야가 거기서 벤엘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사십이 명을 찢었더라"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는 램프는 그 영혼이 죽은 상태이다.

(6)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빛 때문에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려는 상황 때문에 엘리야에게 간청한 한 과부는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하였다. 4장 1절이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야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빛 쓴 사람을 들은 엘리야는 마을에서 그릇을 모아오라고 했고 그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져 그것을 팔 수 있었다.

(7) 엘리야 선지자에게 미션홀을 제공한 수넵 여인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으나 아들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였다. 열왕기하 4장 16절에서 17절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 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나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 때쯤에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성취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8) 열왕기하 5장에서는 70인 제자 군대장관 나아만은 겸손하게 어린 여종을 통해 소개 받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문둥병을 치유 받는 기적을 체험하였다.

(9) 요시아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되었고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시도하였다. 사실은 악한 왕이 성전에 있는 성경말씀, 여호와와 율법을 찾아내어서 개혁을 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이 현장을 가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그 전도 캠프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그는 왕으로서 남은 자 70인 제자의 역할을 하였다. 요시아 왕은 유일하게 램프처럼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보겠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결론으로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의 확실한 언약은 어떠한 정사, 권세와 사탄의 흑암세력이 역사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70인들에게 절대불가능을 절대가능으로 만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남은 자 램프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구애받지 말아라. 환경에 속지 말아라.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평생의 비전은 237나라, 5천 종족들 중에서 악한 지도자들과 귀신, 우상문화를 이기고 현장을 살릴 남은 자 70인 제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OURS 즉,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다. 필리핀 팔라윈에 캠프를 가서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숨어있는 제자가 있다. 우리가 제자가 되었을 때 그 현장에서 제자를 찾게 될 줄을 믿는다.

3. Dream, 꿈이다. 만약 우리들이 열왕기하에 등장한 남은 자들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약속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어떠한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들과 후대를 회복시켜주실 주님께게만 집중한다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주간에는 절대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기록해보시고, 그 문제 위에 기적적인 역사와 능력과 회복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나면 문제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시스템을 셋팅하기 위해서 어떠한 악한 왕들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적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남은 자 70인 제자들로 쓰임 받는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열왕기하서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삼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고 현장에 참된 복음운동을 하며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